

정철 시문집 편찬 과정 고찰

신자료 『유고산편(遺稿散編)』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ditorial Process in Jeong Cheol's Poetry Collections
: With a Focus on the Recently Unearthed *Yugosanpyeon*(遺稿散編)

임미정*

국문초록 본고는 국립한국문학관에 소장된 『유고산편(遺稿散編)』의 발굴을 계기로, 정철(鄭澈) 시문이 시기별로 수습·재편된 과정을 고찰하고, 각 문집 간의 관계와 편찬 방향을 추적한 것이다. 『유고산편』은 정철의 아들 정홍명의 인장이 확인되는 가장(家藏) 자료로, 1633년 초간본 『송강유고(松江遺稿)』 간행 이전에 성책된 선행 시문집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 자료가 『송강유고』, 필사본 『송강속고(松江續稿)』, 삼간본 『송강집(松江集)』의 「송강속집」 및 「송강별집」, 나아가 『송강전집(松江全集)』의 「습유」에 이르기까지 정철 문집의 편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고산편』과 기존 문집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유고산편』이 후대 문집 편찬에 미친 영향은 물론, 시문 수집·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중복·오류 등의 양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철 문학 연구의 자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정철 시의 정확한 현존 수량 확정과 정본(定本) 구축을 위한 교감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송강, 정철, 정홍명, 유고산편, 송강유고, 송강속고, 송강집

- 차례**
1. 머리말
 2. 신자료 『유고산편(遺稿散編)』의 소개
 3. 『유고산편』을 통해 살펴본 정철 시의 정리 과정과 시문집 편찬
 4. 맺음말

稿』라는 이름으로 초간본이 간행되었고, 1674년에 정철의 현손인 정치(鄭治)에 의해 초간본의 복각본인 중간본이 각판되었다. 이후 1894년에는 후손 정운학(鄭雲鶴)의 주도로 삼간본 『송강집(松江集)』이 목판으로 제작되었다. 삼간본에서는 초간본과 중간본의 시문 자료를 ‘원집(原集)’으로 명명하고, 정철의 외증손 이선(李選, 1632~1692)이 정리했던 『송강속고(松江續稿)』를 토대로 ‘속집(續集)’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원집과 속집에서 누락된 시문들을 ‘별집(別集)’으로 모아서, 시기별 정리된 자료를 ‘원집-속집-별집’으로 편차하여 정철 시문 자료의 총정리를 시도했다.

삼간본 간행 이후에도 후손가에는 문집에 포함되지 못한 친필 수적(手蹟)과 유문(遺文)들이 상당량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들은 1964년 성균관대학교 대

1. 머리말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의 문학과 삶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 자료는 세 차례에 걸쳐 목판으로 간행된 그의 문집이다. 정철의 문집은 정철 사후에 넷째 아들 정홍명(鄭弘溟, 1582~1650)에 의해 1633년 『송강유고(松江遺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영인 자료집 『송강전집(松江全集)』을 통해 공개되었다. 유문들은 필사본 형태로 편집되어 ‘송강집(松江集) 습유(拾遺)’로 망라되어 추가되었고, 이 밖에도 한글 가사집인 『송강가사(松江歌辭)』 영인, 친필 수적(手蹟)의 사진판, 다른 문인들의 정철 관련 기록을 모은 ‘습유부록(拾遺附錄)’까지 포괄되면서 명실상부한 ‘송강전집’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정철의 시문 자료들은 아들 정홍명에 의해 최초 정리된 ‘원집’, 외증손 이선이 수습한 유문을 토대로 한 ‘속집’, 삼간본 간행 때 재차 습득한 자료로 만든 ‘별집’, 『송강전집』 편찬 때 문집에 미수록된 작품들을 모은 ‘습유’에 분산되어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게는 작품들이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수습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책에 흩어져 있는 시들을 살펴보면, 연작시가 해체되어 여러 문집에 분산 수록된 경우가 보이고, 가장 나중에 보완된 ‘습유’의 시 중에는 기존 문집에 소재한 시를 중복 수록하거나, 타인의 작품을 정철의 시로 잘못 편입하기도 하였다. 시문학 창작의 실상 확인과 정확한 작품 분석을 위해서는, 산재한 시 자료들을 수합·재편하는 문헌 연구가 선결되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문제들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근래에 국립한국문학관 소장 정철의 시문집 『유고산편(遺稿散編)』의 존재가 확인되었다.¹ 이 책은 정철의 아들이자 정철 문집의 초간본을 편집했던 기암 정홍명의 인기(印記)가 찍힌 필사본 1책으로, 오랜 기간 후손가에서 보관되어온 자료로 판단된다. 현존 정철 관련 시문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성책된 것으로, 특히 정철의 시가 여러 문집으로 분리·편차되기 이전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헌학적 가치가 높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선의 『송강속고(松江續稿)』 필사본도 함께 발굴

하였는데, 이 책은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유일본으로, 삼간본 『송강집』 간행 당시 『송강속집』의 저본으로 사용된 자료다.

본고는 이러한 정철 시문 자료의 새로운 발굴을 계기로, 『유고산편』과 기존 문집들을 비교함으로써, ‘원집-속집-별집-습유’로 정리된 정철 문집 체계 속에서 『유고산편』이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정철 시문 자료의 수집 및 편찬 과정에서 나타난 누락·중복·오류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시 세계를 보다 정밀하게 조명할 수 있는 문헌학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철 시문 자료의 재정리 및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정철 문학 연구의 토대가 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신자료 『유고산편(遺稿散編)』의 소개

국립한국문학관 소장 『유고산편』은 정철의 시만을 모아놓은 책으로, 불분권(不分卷) 1책(총 90장)², 12행 18자의 필사본 한문 자료이다.

〈그림 1〉에서 보이듯 표제는 ‘유고산편(遺稿散編)’이며, 권수제 없이 오언절구 「詠鶴贈宋仁叟」로 시작한다. 〈그림 2〉는 이 책의 첫면인데, 우측 하단에 ‘畸庵’이라는 정형인(鼎形印)이 보인다. 정철의 아들인 기암(畸庵) 정홍명(鄭弘溟)의 인기로, 시가 필사된 종이가 아니라 덧대어진 종이에 도장이 찍혀있다.

이 책에는 모두 626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³ 시들은 대체로 정사(淨寫)되었지만, 중간에 첨입된 시도 있고,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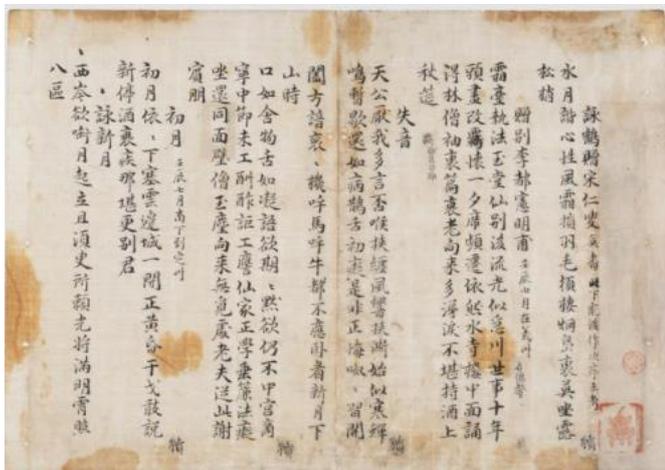
1 『유고산편(遺稿散編)』은 2024년 국립한국문학관 소장자료 해제 사업(사업 기간: 2024.9~12)에 포함된 자료로, 소장번호는 ‘문2238’이다. 해제 원고와 본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주신 자료구축부 이윤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 이 책은 장황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잘못 배치되었다. 기존 22면은 24면으로, 기존 23면은 22면, 기존 24면은 23면에 위치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바로잡은 면수로 시를 소개했다.

3 『유고산편』에 수록된 시 중에서 타인작 8수, 차운시에 붙은 다른 작가의 원운시, 중복 기록된 시를 제외한 정철의 작품 편수이다.



〈그림 1〉『유고산편』 표제



〈그림 2〉『유고산편』 첫면



〈그림 3〉『유고산편』의 표식

율시 3수, 칠언절구 2수, 오언절구 1수가 함께 편집되어 있다. 또한 첫 번째 시의 제목 아래에 기재된 ‘壬辰’은 1592년인데, 정철의 몰년이 1593년 12월이기 때문에 말년에 지은 시가 선두에 배치된 모습이다. 첫 시의 주석에 “이 이하는 난리[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순서는 상고할 수 없다[此下亂後作, 次序未考]”고 하여 본 책의 시가 시기순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다만 책의 후반부에서는 ‘오언절구-오언율시-오언고시-칠언고시-칠언절구-칠언율시’의 순으로 오언시를 먼저 기록하고 칠언시를 뒤에 배치하는 정도의 편집 방향은 포착되고 있다.

목 없이 시만 필사되거나 시의 일부가 결락된 시도 보인다. 정철이 아닌 다른 문인의 작품도 8수가 필사되어 있고,⁴ 종이를 덧붙여서 시 제목을 수정한 경우라든지, ‘○當作△’과 같은 교감주, ‘此詩當在○○詩下’ ‘出○○集’ ‘上下句倒用’ 등의 수정 지시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시의 순서도 체계 있게 정리된 모습은 아니다. 위의 〈그림 2〉를 보면 오언절구의 시로 시작하지만, 이어서 칠언

『유고산편』에는 수록 시와 관련된 많은 표식과 기록들이 함께 전한다.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시를 선별했던 흔적이다. 〈그림 3〉을 보면 시 제목인 「亂後逢沈相國」의 상단에 ‘加抄’라고 쓴 종이가 붙어있다. ‘加抄’라는 글자를 기입하지 않고도 〈그림 3〉의 「輓人」에서와 같이 시가 시작하는 지점에 종이만 붙이기도, 시제나 시의 첫 글자 위에 점을 찍거나 주묵(朱墨) 권점(圈點)을 남기기도 했다. 이 표식들은 이 책에 있는 시들이 여러 차례 선별과 검토를 거쳤다는 흔적이다.

이렇게 ‘加抄’라는 표식이 붙은 시들은 초간본 『송강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반대로 표식이 붙지 않은 시들은

4 『유고산편』에 원운시가 아닌, 잘못 침입된 타인의 작품 8수는 다음과 같다. ① 尹斗壽, 「順天喚仙亭次宋主庵金河西韻」(七律), ② 鄭惟吉, 「寄題延安平遠堂」(『유고산편』에는 「題官家壁」)(五律), ③ ④ 金成遠, 「別霞翁贈青扇以寓別懷詩以謝之求和」(七絕 2수), ⑤ 吳始壽, 「贈白衲」(『유고산편』에는 「用韻贈山僧」)(七絕), ⑥ 高敬命, 「聽應吉琴席上走呈」(『유고산편』에는 「聽霞堂主人彈琴」)(七律), ⑦ 高敬命, 「題宋海安風乎亭次俛仰翁韻」(『유고산편』에는 「江亭次韻」)(七律), ⑧ 高敬命, 「陪俛仰令公登風乎亭用前韻」(『유고산편』에는 「江亭次韻」)(七律).

이 중에서 ①② 2수의 시는 『송강집』 「습유」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③④⑤⑥⑦⑧의 시는 이미 『유고산편』에서 미상의 교정자가 타인의 작품으로 표시하고 있고, 「습유」 편찬 때 제외되었다.

5 표식의 의도는 초간본 간행을 위한 시의 선별이라는 의도가 분명하다. 다

『송강유고』에서 찾아볼 수 없다. 두 본을 함께 살핀 결과, 『유고산편』은 626수이고 『송강유고』의 시는 235수다. 235수 중 232수를 『유고산편』에서 뽑은 것이다. 또한 『유고산편』 권수면에 정홍명의 인기가 있고, 정홍명이 『송강유고』를 편집하고 간행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본 『유고산편』이 초간본 『송강유고』의 저본임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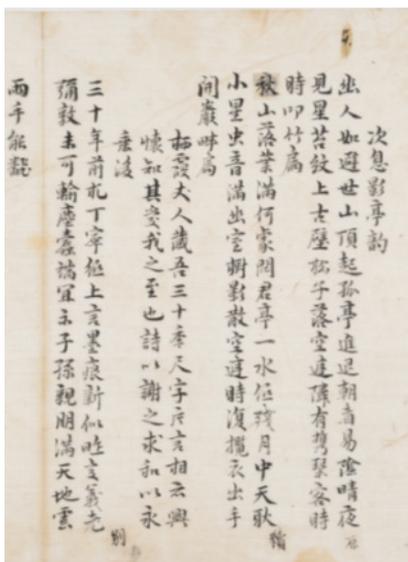
한편, 『유고산편』에는 위의 <그림 2,3>과 아래 <그림 4> 확인할 수 있듯, 각 시의 하단에 ‘原’, ‘續’, ‘別’이라는 작은 종이에 쓴 표식이 보인다. 간행된 문집에서 같은 시를 찾아보면, ‘原’이 붙은 시는 <그림 5>의 초간본 『송강유고』에 있는 시였다. 초간본은 <그림 6>과 같이 추후 삼간본 『송강집』의 간행 때 「송강원집(松江原集)」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原’이라고 표시한 것이다. ‘續’의 표식이 붙은 시는 <그림 7> 삼간본 『송강집』의 「송강속집(松江續集)」 수록 시에서 찾을 수 있고, ‘別’의 표식은 4개뿐이지만, <그림 8> 삼간본 『송강집』의 「송강별집(松江別集)」에 있는 시다. 『유고산편』의 시가 초간본 외에도 삼간본의 시와 다수 겹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표식은 ‘원집’ ‘속집’ ‘별집’의 구도로 문집이 편찬된 1894년의 삼간본 『송강집』 간행 이후에 붙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고산편』 수록 시들이 어느 책에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간본에 미수록된 시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다만, 시에 표식이 없는데도 원집과 속집에 시가 이미 소재해 있거나, 원집이나 속집에 시가 있지만 ‘原’이나 ‘續’ 표식이 없는 몇 군데의 실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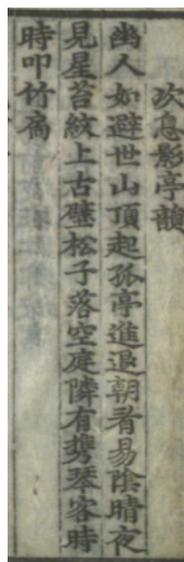
『유고산편』에서 어떠한 표식도 붙지 않은 시들은 ‘원집-속집-별집’에 수록되지 않은 시다. 이 시들은 『유고산편』의 시 626수 중에서 162수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전히 미공개 상태는 아니며, 1964년 『송강전집(松江全集)』 간행 때에 영인 자료로 공개된 『송강집』 「습유(拾遺)」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고산편』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지 못했지만, 사실상 이 책에 소재한 정철의 시는 이미 대부분 공개가 된 상황인 것이다.⁶

추가로 논의할 부분은 그간 정철의 시가 ‘원집·속집·별집·습유’와 같이 분산 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같은 자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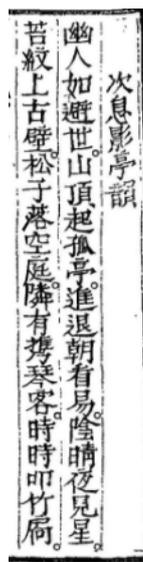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선별 작업을 한 결과인지, 아니면 매 시기 유문을 새롭게 수습한 결과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제 본 『유고산편』이라는 선행 자료의 발굴을 통해서, 초간본이 많은 시 중에서 일부를 선별한 것이고, 이후 남아있던 『유고산편』의 시들, 그 밖의 친필 유묵이나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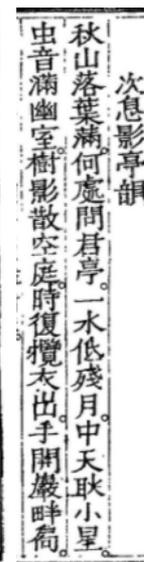
<그림 4> 『유고산편』 4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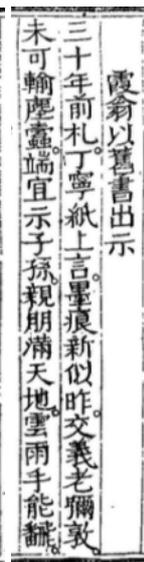
<그림 5> 『송강유고』



<그림 6> 『송강집』 「송강원집」



<그림 7> 『송강집』 「송강속집」



<그림 8> 『송강집』 「송강별집」

만 유전되는 과정에서 종이 가 떨어지거나 혹은 착오에 의해 일부 표식이 잘못 위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선별된 시를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는 변함이 없고 선별된 시로 초간본이 구성된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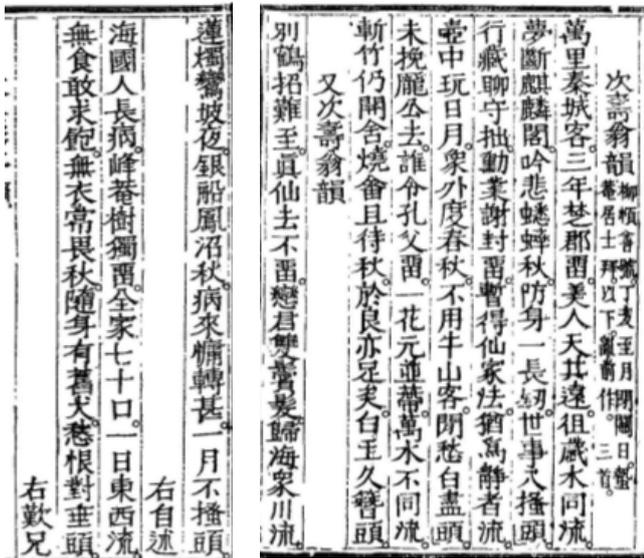
6 『유고산편』에 남아 있던 간본 미수록 시 162수 모두가 「습유」에 제대로 수습된 것은 아니다. 「습유」 편찬 과정에서의 실수로 4수의 시가 누락되었고 여전히 미공개 상태이다. 이 시들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였다.

곳에 산재했던 유문들이 순차적으로 수습된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작시가 여러 문헌에 분산되어 수록된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초간본 편찬 때에 연작시에 대해서도 선별 작업을 한 결과다.



〈그림 9〉『유고산편』의 연작시



〈그림 10〉『송강집』, 『송강속집』의 연작시 분리

〈그림 9〉는 『유고산편』에서 1제 6수로 지어진 「次壽翁韻」이다. 이 시의 하단 표식을 보면, '原'이 1개, '續'이 5개다. 표식과 같이 이 시는 초간본 간행 때 6수 중에서 1수만 선발되어 1제 1수가 먼저 공개되었다. 추후 삼간본 『송강집』, 『송강속집』에서는 나머지 5수를 수습하여 「次壽翁韻」 1제 3수와 「又次壽翁韻」 1제 2수로 편집했다. 6수의

시 자체는 온전히 유전되고 있지만, 원집과 속집, 그리고 속집 내에서도 시가 재차 분산되면서 1제 6수의 시가 최종적으로는 3제 6수의 모습이 된 것이다. 현재 정철의 시는 여러 자료에 산재해 있고, 그 과정에서 연작시가 해체되고 재편된 위와 같은 사례가 많다. 제목도 조금씩 달라진 경우가 있어서,⁷ 『유고산편』이 없었다면 연작시의 원모습을 복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위의 〈그림 10〉을 보면 시제 아래에 소자 쌍행의 주석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주석은 『유고산편』에는 없는 내용이다. 삼간본 『송강집』, 『송강속집』 편찬 때에 다른 자료를 활용했거나 주석 작업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의 〈그림 10〉 시의 끝에는 '右自述' '右歎兄'의 설명이 붙어있는데, 〈그림 9〉 『유고산편』에는 각기 '自注右自述' '自注右歎君'으로 되어있다. 『송강집』, 『송강속집』에는 '自注'라는 중요한 사실도 빠져 있고, '歎君'을 '歎兄'으로 잘못 표기한 오류도 보여서, 초간본 『송강유고』와는 다르게 『유고산편』과의 거리라든지 완성도면에도 문제가 포착된다.

〈표 1〉은 삼간본 『송강집』에서 보이는 오류 중 일부다. 우선 1의 시는 초간본 『송강유고』에서 선발된 시로, 이 시가 소재한 문헌은 지금까지 『송강유고』와 『송강집』의 「송강원집」까지 2종이 있었다. 본 『유고산편』의 발굴로 이본이 추가되었고, 현존 3종의 문헌을 대교한 결과, 『유고산편』과 『송강유고』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었지만 『송강집』

7

1	追次洪太古韻, 奉別一壑學士	追次洪太古韻, 奉別金學士信元(원집)	1제 2수
		追次洪太古韻, 奉贈一壑金學士信元(속집)	
2	次孝移韻奉呈西峴峯叟	次李孝移廷冕韻, 示西峴(원집)	1제 2수
		次李孝移廷冕韻, 呈西峴峯叟(속집)	
3	奉贈君會舊契	奉贈君會舊契(원집)	1제 3수
		奉贈君會舊契尹景禧(속집) 三首中其一	
		奉贈君會舊契尹景禧(속집) 四首中其一	
4	息影亭雜詠次韻詠	息影亭雜詠(원집) 十首	1제 20수
		息影亭雜詠次韻(속집) 十首	
5	次剛叔韻	次剛叔韻(원집)	1제 2수
		次金剛叔成遠韻(속집)	

〈표 1〉 삼간본 『송강집』의 오류

1	歸九將發舟龍津 → 歸舟將發九龍津	『松江集』 「松江原集」 「送聖節使書狀官宋仁叟考」
2	白日嫣然松竹叢 → 百日嫣然松竹叢	『松江集』 「松江續集」 「霞堂四欠」
3	「次慶喜樓韻寄白麓」 → 「次喜慶樓韻寄白麓」	『松江集』 「松江續集」
4	兒說雙溪洞 → 見說雙溪洞	『松江集』 「松江續集」 「奉贈君會舊契尹景禧」
5	凌溪距蘆洞 → 雙溪距蘆洞	『松江集』 「松江續集」 「奉贈君會舊契」

에서만 오자가 보이는 상황이다. 같은 문제는 〈표 1〉의 2와 3에서도 이어진다. 이 시들은 『송강집』의 「송강속집」에 수록되었는데, 『유고산편』에는 정확하게 필사되어 있지만 『송강집』 간행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다음장에서 소개하겠지만, 『송강집』 간행 때 활용된 필사본 『송강속고』에도 이 부분은 오류가 없다. 그러나 〈표 1〉 4, 5의 시는 저본의 문제가 간본에 그대로 이어진 경우다. 필사본 『송강속고』에서부터 ‘見’을 ‘兒’로, 추후에 고쳐놓기는 했지만 ‘雙’을 ‘凌’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삼간본 간행 때 저본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간행한 사례로 정리할 수 있다.⁸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고산편』은 정철의 시 626수를 수록하고 있는 필사본 시집이다. 가문 내에서 오랜 기간 유전되었던 책으로, 여러 후손들에 의해 시구나 시제의 수정과 교감, 시의 선별 작업이 이루어졌던 흔적들이 확인되는 중요한 선행 자료다.⁹

8 현재 한국고전번역DB에는 삼간본 『송강집』의 원문텍스트와 원문이미지가 탑재되어 있다. 삼간본의 오류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원문 입력이 잘못된 곳도 확인된다. 교감과 정본 작업이 필요하고, 기존에 알려진 번역도 원문과 함께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9 『유고산편』 권말에는 다음과 같은 후손 누군가의 기록이 남아 전한다. “이 책에서 오자와 첩자 부분은 모두 전해지는 과정에서 바로잡지 못한 것이니 뜻에 따라 고쳐도 무방하다. 잘못 기록된 부분은 또한 부표를 붙여 보여준다. 시 제목 중에는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어서 온당치 못한 부분이 많으니 반드시 수정하고 다듬어야 한다. 책 속에 다른 사람의 작품이 잘못 기록된 것이 있다면 보고 들은 바에 따라 삭제한다. 또한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모두 추가해야 한다. 필사한 순서와 잘된 작품들의 목록을 제목으로 나열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篇中誤字疊字處, 皆得於傳誦未能釐正者, 不妨隨意改安, 誤書處, 亦付標以示. 詩題有非當時所錄, 而多有未安處, 必須修潤, 卷中或有他人所作誤書者, 亦隨聞見刪去. 且

특히 이 책의 표식들은 『유고산편』이 선행 시문집으로써, 현존 정철의 문집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고산편』이 초간본 『송강유고』의 편찬 과정에서 직접 활용된 저본이면서, 초간본 『송강유고』가 저본에 소재한 626수 중에서 232수만을 가려 뽑은 사실까지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고산편』의 시들은 초간본 『송강유고』 외에도, 이후에 제작된 문집들에도 다수 수습되어 있어서, 이 책을 통해 문집 자료와의 교감, 오류 수정, 정본 작업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삼간본 간행 때까지 공개되지 못했던 『유고산편』의 미수록시 162수가 1964년에 간행된 『송강전집』 영인본에서 「습유」로 편입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습유」 자료의 대부분이 『유고산편』이라는 사실은 「습유」의 저본 확인이라는 의의 이상으로, 「습유」 소재 시의 가치를 재고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유고산편』과 정철의 문집 자료들을 함께 살피면서 정철의 시문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편집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3. 『유고산편』을 통해 살펴본 정철 시의 정리 과정과 시문집 편찬

3.1. 초간본과 중간본 『송강유고』의 간행

: 『유고산편』을 통한 정선(精選) 작업

정철의 시는 넷째 아들 정홍명에 의해 문집 간행이 계획되면서 시문이 수습되었다.¹⁰ 정홍명이 정철의 시문을 1차로 정리한 시점은 1619년으로, 이를 신흙(申欽)에게 보내어 1622년 겨울에 서문을 받았고, 1633년 봄에 장유(張維)의 후서, 1633년 여름에 이정귀(李廷龜)의 서문, 1633년 여름 5월에 김상헌(金尙憲) 발문까지 갖추어서,¹¹

有遺落未書者, 并須添入. 所抄次序及歷卷某篇, 列書題目以示.]”

10 “松江鄭文清公遺藁一卷, 胤子華谷公文若干篇附焉, 季子畸翁公所編輯也.”(韓章錫, 『眉山集』 卷7, 「松江集重刊序」)

11 “己未冬, 公之季胤正字弘溟氏哀公詩, 授簡於欽. …(中略)… 天啓二年歲

『송강유고』가 간행되었다. 간행 시점은 발문을 근거로 현재 163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철 사후 40년 만에 문집이 간행된 것이다. 현존 초간본은 2권 1책, 유계(有界), 10행 18자, 주쌍행(註雙行)의 형태이며, 상권은 시, 하권은 산문, 부록으로는 정철의 큰아들이자 정홍명의 큰형인 정기명(鄭起溟)의 유고가 함께 판각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 초간본의 판목이 닳고 흐려지자, 1674년 정철의 현손(玄孫)인 정치(鄭治, 1653~1724)가 청암독우(靑巖督郵)로 있으면서, 전라도 관찰사와 인근 수령의 도움을 받아 중간본의 목판을 판각하게 된다.



〈그림 11〉 초간본 『송강유고』 권수제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12〉 중간본 『송강유고』 권수제면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그림 11,12〉에서 보이듯이 중간본은 초간본 『송강유고』와 내용과 편차가 동일하고, 서체의 차이도 없다. 북각본으로 판단되며 일부 판목만 개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초간본과 중간본의 차이는 중간본 각판 때 송시열(宋時烈)에게 받은 발문인 「松江文集重刊跋」이 중간본에만 추가되

舍壬戌孟冬，東陽申欽，書于黔浦之寓舍。(申欽, 『松江遺稿』「松江遺稿序」); 右松江遺稿。古今詩雜文摠若干篇。分爲幾卷。季子舍人君所手編。而玄軒相公爲之序。舍人君以授維。; 旣編次先相公遺藁，又哀集其長公起溟氏所著詩文，附刻于其下。…(中略)… 崇禎癸酉夏，延安李廷龜書。(李廷龜, 『松江遺稿』「松江遺稿序」); “頃者相國季子今國子祭酒子容氏，以公之遺稿示余，徵敘若跋文。…(中略)… 崇禎六年癸酉五月下旬，安東金尙憲謹跋。”(金尙憲, 『松江遺稿』「松江遺稿跋」)

어 있다는 점이다.¹² 중간본은 초간본과 형태가 같아서, 역시 2권 1책, 유계(有界), 10행 18자, 주쌍행(註雙行)의 모습이다. 판심제도 ‘松江遺稿’로 동일하다.

앞장에서 『유고산편』의 표식을 분석하면서 『유고산편』이 초간본 『송강유고』의 저본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유고산편』의 시는 626수인데, 이 중에서 『송강유고』는 232수를 『유고산편』을 통해 선발했고, 그 과정은 〈그림 3〉에서 제시했던 『유고산편』에 붙은 표식들로 확인했다. 『송강유고』의 시 중에서 『유고산편』과 관계없는 3수는 다음과 같다.

- ① 「出城」 “安危去國日，風雨出城人。離思如春草，江南處處新。”(伍絕)
- ② 「寄瀛洲使君」 “已誤尋眞計，誰傳度海書。相思一枕夢，山雨杏花初。”(伍絕)
- ③ 「銀臺直夜寄洪學士迪」 “掖垣風雨夜厭厭，世事羈心白髮添。窗外芙蓉抱香死，伍更燈火獨鉤簾。”(七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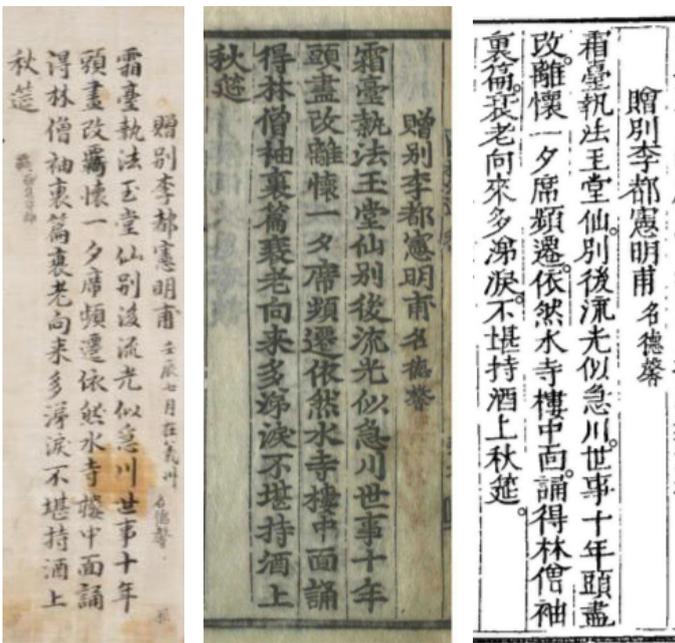
이 중 ①번 시는 『오산설림(五山說林)』에서 정철이 이황을 송별할 때 지은 시로 2수를 소개했는데 그 중 제1수다. 나머지 1수는 『송강유고』

에 「別退陶先生」의 제목으로 1수만 단독으로 수록되었고, 시와 제목이 상황에 맞는다. 다만 이 시의 제목은 「出城」이며, 또 다른 문제는 1638년에 간행된 정유길(鄭維吉, 1515~1588)의 『임당유고(林塘遺稿)』에 정유길의 시로 이시가 「送宋應漑令公左降衿川」이라는 제목으로 중복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3수의 시는 『유고산편』에 없기 때문에 수습 과정을 고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위의 3수를 포함한 『송강유고』의 시는 오언절구 102

12 “公之文集刊行於世者，五十年矣。板本已就剝缺，今公之玄孫治爲靑巖督郵，議於方伯守宰，謀新劖劂。…(中略)… 時賜逢攝提格中秋日，恩津宋時烈謹跋。”(宋時烈, 『松江遺稿』「松江文集重刊跋」)

수, 칠언절구 77수, 오언율시 15수, 칠언율시 34수, 오언고시 1수, 칠언고시 6수까지 모두 235수다. 기본적으로 『유고산편』을 통해 시를 뽑았기 때문에 『유고산편』의 시구가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목 역시 대체로 『유고산편』을 따르고 있다. 다만 『유고산편』 시를 가려 뽑는 과정에서 시의 창작 시점이나 관련 배경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제목을 변경하거나 한 경우가 있어서 살펴보았다.



〈그림 13〉『유고산편』·『송강유고』·『송강집』·『송강원집』의 같은 시

〈그림 13〉은 『유고산편』의 시「贈別李都憲明甫」가 『송강유고』, 『송강집』의 「송강원집」에 각각 수록된 모습이다. 원시에는 시제 아래에 「壬辰七月在義州」라는 창작 시기와 장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지만, 초간본 편집 때부터 설명이 소거되었고, 이는 삼간본 간행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보들은 각 시를 시 형식별로 재편차하여 배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소거되었던 것 같다. 『유고산편』에는 기존 간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 관련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반해 간본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삭제되어 있어서 추후 교감 작업을 통해 복원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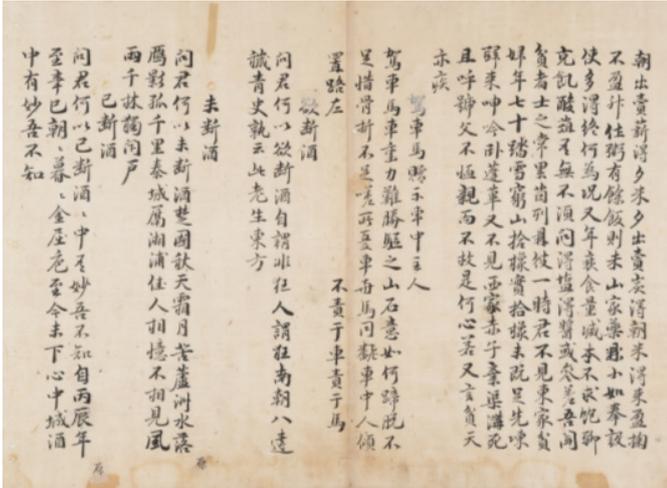
대신 〈그림 13〉의 간본에는 『유고산편』에 없었던 이명

보(李明甫)의 이름인 「德馨」을 추가하고 있다. 정철이 자호로 기재했던 인물들의 본명을 밝혀놓는 작업은 간본 전반에서 확인된다. 〈그림 13〉의 『유고산편』에도 제목과 주석 아래에 「名德馨」이라고 기재해 놓았고, 또 같은 필체로 시가 끝나는 지점에 「覆은 원집에 離로 되어있다[原集作離]」라고 한 것이 보이지만, 이 글씨들은 후대에 간본을 보고 가필한 것이다. 앞서서 후손가에서 『유고산편』을 1964년 『송강전집』 간행 때까지 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본 대교를 통해서 이를 재차 확인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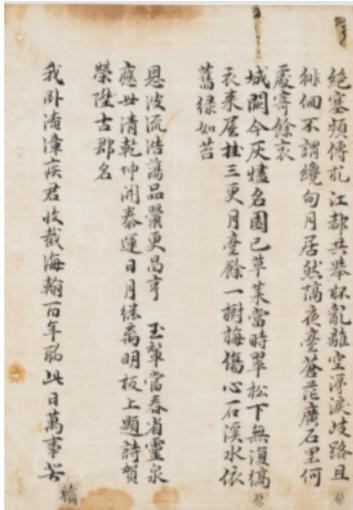


〈그림 14〉『유고산편』과『송강유고』의 같은 시

〈그림 14〉를 보면 『유고산편』에 수록된 「再容前韻」시 가운데 제1수는 『송강유고』에 「納淸亭次韻」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는 해당 시가 원래 지어졌던 맥락과는 달리, 『송강유고』 편찬 과정에서 앞선 원운시를 제외하고 후속작만을 선별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시의 제목 또한 당초의 「再容前韻」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제목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고산편』에서는 시의 제목 아래에 창작 시기 및 관련 정보가 병기되어 있으나, 『송강유고』에서는 선행 시가 탈락함에 따라 해당 정보 역시 함께 누락되었다. 이 같은 편집은 제목과 주석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 선별 및 재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최소한의 편집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5〉『유고산편』 53면



〈그림 16〉『유고산편』 5면 일부

〈그림 15〉에서 중간에 위치한 「欲斷酒」는 시 아래 아무런 표식이 없는 시로, 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시다. 1964년 『송강전집』 간행 때에 공개된 시인데, 이 시는 보다시피 후반 2구가 빠진 7언 4구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림 15〉에서 바로 이어지는 「未斷酒」·「已斷酒」와 함께 지은 것으로 보이는 희작시인데, 첫 번째 시에 낙구가 있다 보니 원집에서 함께 수습되지 못했다. 바로 앞의 「賀車馬贈示車中主人」이라는 시도 후반부에 7자가 빠진 모습이다. 이러한 결구나 결자 상태의 시라도 『유고산편』은 모두 남겨두어서 정철의 시문 자료들을 최대한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초간본 『송강유고』는 기존 시를 정선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시는 모두 선발에서 제외했다. 이 두 수는 이후 필사본 『송강속고』, 삼간본

『송강집』 편찬 때에도 제외되었고, 『송강전집』의 「습유」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수습되었다.

〈그림 16〉을 보면 왼쪽의 시 두 수에 제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들 역시 『송강유고』 간행 때는 모두 제외되었다. 이 시들은 시 아래에 ‘續’의 표식이 보이듯, 『송강집』의 「송강속집」에서 ‘失題」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제목 없이 유전된 시들은 현재 『송강속고』에는 ‘無題」나 ‘失題」로 정리되어 있고, 추후 『송강집』 「송강속집」에서는 ‘失題」라는 제목으로 통일되어 전한다.

지금까지 『송강유고』에 대해서는, 문집에 붙은 서발문에 근거하여 정홍명이 1619년에 원고를 정리하고, 1633년경 이를 목판으로 간행했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었다. 문집에 수록된 235수의 시도 그 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당시 수습할 수 있었던 시 전체인지, 혹은 정홍명에 의해 선별된 결과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유고산편』이 『송강유고』의 저본임을 구명하였으며, 『송강유고』는 『유고산편』에 수록된 시를 선별하여 간행한 결과물임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제가 불분명하거나 결자(缺字)·결구(缺句)가 존재하는 시는 선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시의 선별 및 형식별 편차 과정에서 일부 작품의 제목이 변경되거나, 원시에 첨부되어 있던 정보들이 삭제된 사례도 살필 수 있었다.

다만 본고는 『유고산편』의 존재를 밝히고 이후에 산출된 문헌 자료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선별된 시와 제외된 시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초간본의 선별 결과가 시의 예술성이라든지 완성도, 특정 제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시화 등에서 절창으로 평가되는 정철의 시 가운데 일부는 『송강유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¹³ 이

13 시화에서 소개된 시들 중에 가장 많이 절창으로 회자되는 시는 「咸興客館對菊」(『松江遺稿』, 七絶), 「夜坐聞鶉」(『松江遺稿』, 七絶), 「統軍亭」(『松江遺稿』, 五絶), 「秋日作」(『松江遺稿』, 五絶)까지 4수다. 이 시들은 모두 초간본에 보인다. 그 외에 「戲贈俞相」(『松江續集』 七絶), 「醉題鄭相宅」(『松江遺稿』, 七絶), 「磨天嶺」(『松江遺稿』, 七絶), 「山寺夜吟」(『松江續集』 五絶), 「舟中謝客」(『松江遺稿』, 七絶), 「別退陶先生」(『松江遺稿』, 五絶),

는 초간본 외의 문집 자료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정철 시를 분석함에 있어, 여러 문집에 산재된 자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는 『송강속고』를 처음 공개하면서 『송강유고』와 『송강집』 간행 사이에 수습된 정철 시문 정리 작업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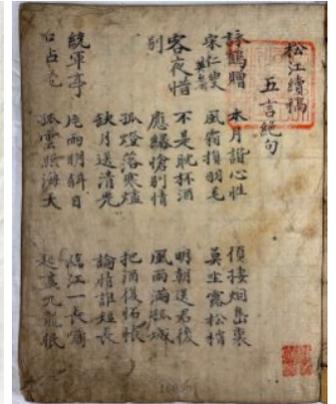
3.2. 필사본 『송강속고』의 존재와 삼간본 『송강집』의 간행: 유문의 지속적인 수습과 재편

1633년 초간본 『송강유고』가 간행된 이후, 이를 복각한 1674년 중간본 역시 출간되었으나, 두 판본 모두 『유고산편』에 수록된 626수 가운데 232수만을 선별하여 수록한 결과물이었다. 이에 따라 정철의 미수습 시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고, 가장 이른 시도로 1677년에 정철의 외증손 이선(李選, 1632~1692)에 의해 1책 분량의 『송강속고(松江續稿)』가 편찬되었다.¹⁴ 이 책은 간행되지는 못해서 필사본의 상태로만 전해지다가, 1894년 삼간본 간행 때에 『송강속집』의 저본으로 활용된 책이다.¹⁵

지금까지 『송강속고』는 1964년 간행된 『송강전집』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실본의 현존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송강유고』 해제에서 초간본 『송강유고』와 삼간본 『송강집』 편찬의 전말을 밝히면서 『송강속고』의 존재를 언급한 바가 있고,¹⁶ 실제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필사본 『송강속고』(청구기호 D810.819 정813사)가 현존한다. 지금까지 초간본 『송강유고』 간행 이후의 정철의 시문 자료는 1894년에 간행된 삼간본 『송강집』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고에



〈그림 17〉 『송강속고』 표지



〈그림 18〉 『송강속고』 권수제면



〈그림 19〉 『송강속고』 권말

『송강속고』(청구기호 D810.819 정813사)는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17〉에서 확인되듯, 원래의 표제는 ‘先祖遺稿’였으나 후에 ‘松江續稿’로 수정되었고, 불분권 1책(총 61장), 그 중 앞 40장은 시, 뒤에 배치된 21장은 산문이다. 〈그림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사된 시들은 상당은 시제, 하단은 시 본문으로 구성되었고, 시 형식별로 정연하게 정리된 모습이다. 〈그림 19〉의 권말 부분에는 송시열이 작성한 「松江續稿跋」을 베낀 별지 한 장이 첨부되어 있다.

『송강속고』의 각체별 시 수는 오언절구 100수, 칠언절구 103수, 오언율시 21수, 칠언율시 47수, 오언고시 7수, 칠언고시 1수, 칠언배율 1수, 칠언장편 2수로 모두 282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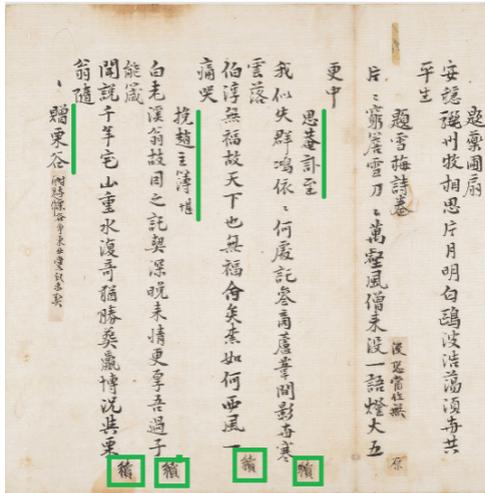
「對花漫吟」(『松江續集』五絶), 「次思菴韻」(『松江遺稿』, 七絶), 「聽湖樓月下作」(『松江續集』七絶), 「次贈李潑」(『松江續集』七絶), 「亂後峯沈相公」(『松江遺稿』, 五律) 정도여서 초간본 수록 시의 비중이 높지만 속집의 시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이상의 시들은 유창·허경진·조계, 『한국시화인물비평집』2, 보고서, 2012. 925~933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4 “右松江續稿, 李擇之得於掌蹠闌簡, 參以聞見所及, 而繕寫成秩者也。”(宋時烈, 『松江集』「松江續集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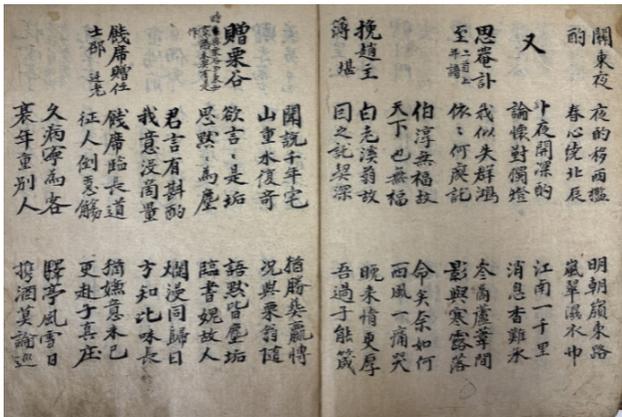
15 “續集一卷, 卽李公芝湖之繕寫成秩者也, 尤菴跋文. 備陳委曲, 今不可增損, 故一從舊本, 而峯隱二書之未附, 亦松跋文, 已悉其由, 則不可闕漏焉。”(『松江集』「松江集凡例」)

16 『松江遺稿』(稀 D03B-4238 v.1) 해제(<https://east.skku.edu/#/search/detail/7012561?offset=1>)

의 시가 수록되어있다.¹⁷ 이 시들 역시 대부분 『유고산편』을 통해 선별한 것으로, 『유고산편』의 시들은 이미 초간본 간행 때 한 차례 선별된 적이 있어서, 『송강속고』에서는 선별되고 남은 나머지 시들을 대상으로 시를 뽑았다.



〈그림 20〉 『유고산편』 36면



〈그림 21〉 『송강속고』 6면

〈그림 20〉의 『유고산편』은 오언절구가 필사된 부분으로, 왼쪽 면 하단에는 ‘속집’에 해당 시들이 수록되었다는 표식이 붙어있다. 『유고산편』의 순서대로라면 「思菴詩至」 2수, 「挽趙主簿堪」 2수, 「贈栗谷」 2수가 이어지는데, 이는 〈그림 21〉의 『송강속고』에서도 시의 순서와 시제, 시구가 모두 그대로 옮겨져 있다.

17 『송강속고』에는 초간본에 이미 수록된 시들 중복 수습하기도 했다. 『송강속고』 오언절구의 마지막 시 「題泉源驛樓」는 초간본에 「題泉源驛」으로 실린 시이며, 칠언절구 중 「次玉峯見寄之韻」은 초간본에서 「嶺東雜錄」 시와 시구가 거의 같아서 중복 기록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문인 최당신(崔唐臣)의 시를 정철이 과제(科題)로 사용했다고 기록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3수는 제외하고 수량을 파악하였다.

다만 『송강속고』의 편찬 과정에서도 『유고산편』에 수록된 시들은 선별을 거쳐 채택되었다. 앞서 〈그림 15,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강속고』는 결자(缺字)·결구(缺句) 등의 문제가 있는 시들을 배제하고 선별된 시만을 수록하였다. 이는 곧 『송강속고』 또한 일정 기준에 따른 선별적 편찬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유고산편』에 실린 시 중 162수는 1894년 『송강집』 삼간본 간행 시점까지도 미수습 상태로 남아, 간본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송강속고』는 『유고산편』을 저본으로 하여 시를 선별하는 한편, 그 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시를 추가하는 편집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송강속고』에 수록된 시 중 일부는 『유고산편』 이외의 문헌에서 보완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송강속고』에 실린 오언절구 100수 가운데 15수, 칠언절구 103수 중 39수, 오언율시 21수 중 6수, 칠언율시 47수 중 10수, 오언고시 7수 중 2수가 『유고산편』 외의 자료를 통해 수집된 시이다. 이를 종합하면, 『송강속고』 총 282수 가운데 203수는 『유고산편』에서 수습된 시이며, 나머지 79수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보완된 것이다.

한편, 『유고산편』에 실린 시들이 『송강속고』에서는 연작시로 재편되면서 시제 또한 새롭게 부여된 사례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송강속고』에 수록된 「高陽山齋有吟寄景魯」 연작 10수 중 4수는 『유고산편』에도 각각 별도의 시제로 수록되어 있으나, 그 시제는 「錢席黃正言……呼韻」, 「過吉吉怡閑居」, 「贈李陰城榮春」, 「酒席口號」 등으로 상이하다. 이처럼 기존의 개별시들을 연작 형태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시제를 부여한 편집 방식은, 『유고산편』 이외의 자료—예컨대 친필 유묵이나 다른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시를 재편집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편집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과 의도는, 향후 보다 정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은 편찬 과정을 거쳐 구성된 『송강속고』의 시 282수는 단 한 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삼간본 『송강집』에

수록되었다. 이 중 280수는 『송강집』의 「송강속집」에, 나머지 칠언장편 2수는 「송강별집」에 각각 편제되었다. 따라서 필사본 『송강속고』는 삼간본 간행 때 「송강속집」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여기에 수록된 시들 또한 간행본을 통해 이미 공개된 상태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삼간본 『송강집』 「송강속집」의 수록 시의 구성과 편찬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송강속집」은 기본적으로 본 필사본 『송강속고』의 시를 수용하였지만, 「송강속집」에는 『송강속고』와 관계없는 시가 확인된다. 「송강속집」에 수록된 시 가운데, 『송강속고』 외의 자료에서 채록된 시 수를 형식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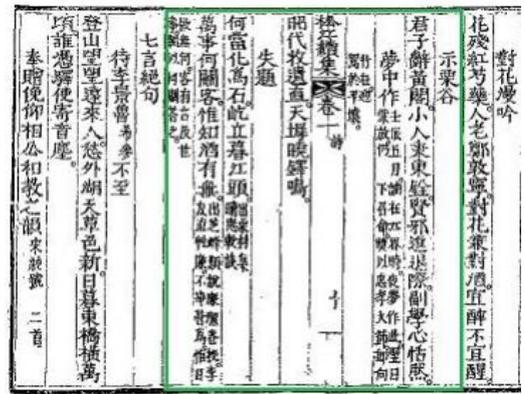
〈표 2〉 『송강집』 「송강속집」의 각체별 시수와 『송강속고』의 시수

	오절	칠절	오율	칠율	오고	칠고	칠배		칠언장편
『송강속고』	101수 ¹⁸	103수	21수	47수	6수 ¹⁹	1수	1수	280수	2수
추가시	2수 ²⁰	16수	4수	1수	1수			24수	
『송강속집』	103수	119수	25수	48수	7수	1수	1수	304수	

〈표 2〉는 삼간본 『송강집』 「송강속집」에 수록된 각체별 시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는 「송강속집」을 구성하는 데 기초가 된 『송강속고』의 시 수와,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시 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총 304수로 구성된 「송강속집」 중 280수는 『송강속고』에 기반한 것이며, 나머지 24수는 별도의 자료에서 보완된 것이다. 추가된 시들이 어떤 경로로 수습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간접적인 단서를 통해 그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예컨대 송시열은 『송강속고』의 발문에서 이선에게 「戲贈俞相」이라는 시를 건넨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²¹ 이 시가 실제로 「송강속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송시열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로부터 유문(遺文)을 추가로 확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장석(韓章錫, 1832~1894)의 기록에 의하면 이선이 편집한 『송강속고』는 추후 정재경(鄭在馨)에 의해 증보되었다고 한다.²² 현존 『송강속고』는 1책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선의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송강속고』와 삼간본 「송강속집」과 비교했을 때, 『송강속고』에 없는 시가 「송강속집」에 있다면 이는 정재경에 의해 수습된 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송강집』 범례에 「송강속집」은 구본(舊本)을 전혀 편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가문 내에 전해지던 『송강속고』의 최종 편집본을 토대로 그대로 판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22〉 『송강집』 「송강속집」 오언절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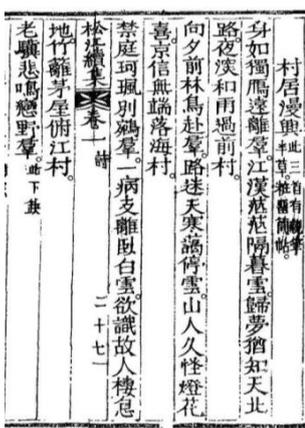


〈그림 23〉 『송강집』 「송강속집」 칠언장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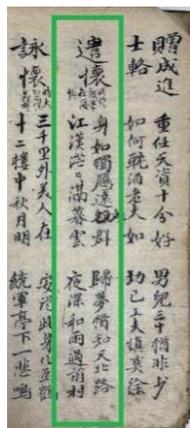
18 『송강속고』의 오언절구는 100수인데, 속집에서 오언고시 1수를 오언절구로 배치했기 때문에 101수로 고쳐놓았다.
 19 『송강속고』의 오언고시는 7수인데, 속집에서 1수를 오언절구로 배치했기 때문에 6수로 고쳐놓았다.
 20 오언 2구로 된 절구가 두 구 수습되어 있으나 시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1 “其戲俞相一絕，余之得於古篋者也，其事類俳而亦不棄者，蓋亦閒情賦之例云。”(宋時烈松, 『松江集』 「松江續高跋」)

22 “松江鄭文清公遺藁一卷，胤子華谷公文若干篇附焉，季子畸翁公所編輯也。年譜二卷，尤齋宋先生所訂定也，久已行于世。芝湖李公菟補爲續藁一卷，而後孫在馨又摺拾其遺，增之爲三卷，並以附錄二卷，藏于家，摠八卷。嗣孫樞澤，與諸族謀所以合梓，湖南人士慕義出力以相之云，章錫猥忝校勘之役，刪復整編，因得以盡讀是集也。搜羅斷爛之餘，積數世更羣賢而始克會通，尤可貴也。”(韓章錫, 『眉山集』 卷7 「松江集重刊序」)

<그림 22>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구역은 삼간본 『송강집』 「송강속집」에 새롭게 추가된 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오언절구 2수와 5언 2구의 절구 2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강속집」 오언절구 항목 중 가장 말미에 위치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송강속집」의 오언절구가 『송강속고』와 시의 배열 순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황은 『송강속고』의 편찬 이후 추가로 수집된 시들이 시의 기존 배열을 유지한 채 항목의 후미에 일괄적으로 배치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림 23>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영역은 「송강속집」의 칠언절구 항목 중 일부로, 여기에 포함된 시들은 여러 수가 함께 수습되어 하나의 균을 형성하고 있으나, 오언절구 항목처럼 항목 말미에만 일괄 배치된 것은 아니다. 칠언절구 역시 기본적으로 『송강속고』에 실린 시들을 수용하고 있으나, 시의 배열 순서에는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동시에 다수의 시가 추가되어 편제에 변화가 가해졌다. 이는 『송강속고』 편찬 이후 「송강속집」 간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뤄진 시의 재편 정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24> 「송강속집」



<그림 25> 『송강속고』 <그림 26> 『유고산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송강속집」의 편집 양상이다. <그림 24>는 「송강속집」의 「村居漫興」이라는 작품으로 칠언절구 3수와 7언 1구의 절구 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수는 <그림 25>의 『송강속고』에 「遣懷」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시와 동일한 작품이다. 더불어 <그림 26>의 『유고산편』에도 동일한 시가 「遣懷」라는 제목으로 실

려 있고, 이어지는 「詠懷」 시도 『송강속고』에 같은 순서로 선별된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작품이 『유고산편』에서 『송강속고』로 전승되었으며, 이후 다른 시와 결합되며 연작 시로 재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시 제목 또한 변경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정철의 시들이 단순히 시기별로 수집되어 수록된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일정한 선별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편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동국대학교에 소장된 필사본 『송강속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삼간본 『송강집』 중 「송강속집」과 비교함으로써, 『송강속고』가 「송강속집」에 흡수된 선행 자료임을 먼저 입증하였다. 그리고 『송강속고』와 「송강속집」의 차이를 확인하여, 『송강속고』의 성책 이후 후속 작업에 의해 시가 추가되고, 재배치되거나 시제가 변경된 사실까지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이는 간본 「송강속집」이 구분을 그대로 판각했다는 범례의 설명에 근거하여 편찬 과정을 파악한 것으로, 간본 「송강속집」의 저본은 현존 간본과 같은 내용의 필사본이며, 본 『송강속고』를 대상으로 추가 작업을 한 결과물로 상정하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였다.

한편, 삼간본 『송강집』에는 「송강속집」 외에도 「송강별집」을 통해서도 정철의 시가 추가로 수습되어 있다. 「송강속집」과 「송강별집」의 간행은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송강속집」과 「송강별집」의 편찬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송강집』의 범례를 보면 「송강별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편찬 경위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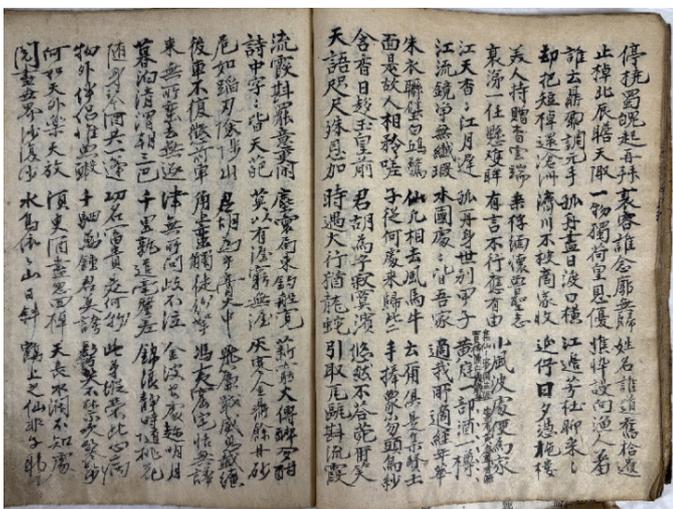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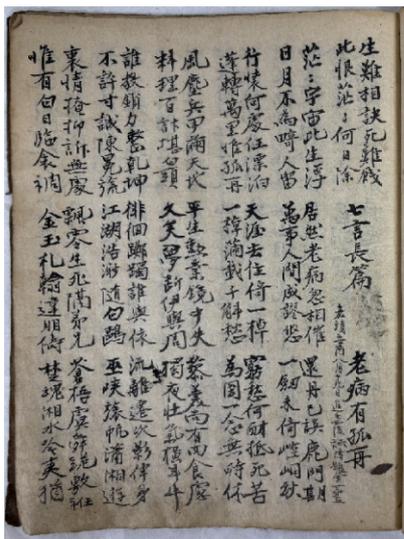
“속집 외에 몇 편의 글을 찾아내었는데, 모두 선생의 친필이 분명하다. 이를 분류하여 수록하고 마땅히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자의 서술 예에 따라 ‘별집(別集)’이라는 명칭을 붙였다.”²³

앞서 「송강속집」 부분은 『송강집』 간행 당시에 확보하

23 “續集外撮出若干篇，儘是先生之手墨筆帖，昭然無疑者。分彙追錄，而自當爲一部書，則謹依朱書例，以別集爲號。”(『松江集』 「松江集凡例」)

고 있었던 '구본(舊本)'을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곧 본고에서 처음 소개한 필사본 『송강속고』 편찬 이후로도 시가 일부 추가되고 수정된, 현 간본 「송강속집」과 같은 모습의 저본이 존재했다. 따라서 『송강집』 간행 즈음에 새롭게 수습한 시들은 「송강속집」에 포함 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송강별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별도의 책으로 묶었고, 여기에 정철의 시가 오언절구 10수, 오언율시 2수, 칠언절구 4수, 칠언율시 1수, 오언고시 3수, 칠언배율 2수, 칠언고시 4수로 모두 26수가 수록되게 되었다.

「송강별집」의 시 중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앞서 살펴본 필사본 『송강속고』 자료 중에서 칠언장편 2수가 있다.



〈그림 27〉 『송강속고』 칠언장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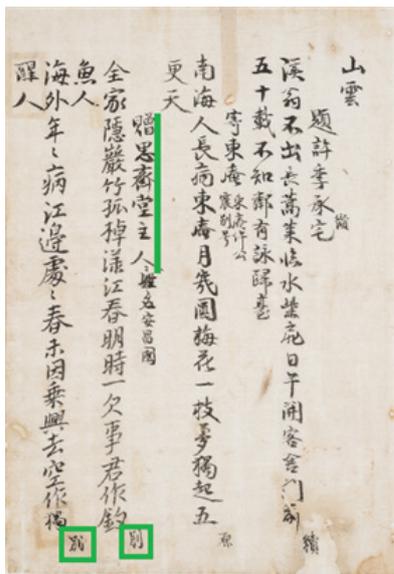
〈그림 27〉은 『송강속고』에 실린 칠언장편 「老病有孤舟」와 「少風波處便爲家」 2수다. 이 시들은 『송강속고』 소재 작품 중 「송강속집」에 수록되지 않은 유일한 작품들이다. 시 옆에 작은 글씨로 부기된 정보들도 함께 간본에 옮겨졌지만, 필사본이 더 자세하다.²⁴ 이 시들은 삼간본 「송강속집」 간행에서 구본을 편집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송강속고』 성책 이후 정재경 등의 후속 작업 때 선발에서 제외된 시로 파악된다. 기존 문헌에서 유문으로 남아 있던 시들과 친필유묵 자료들이 「송강별집」에 포함된 정황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송강별집」은 『유고산편』의 유문은 전혀 수습하지 않았다. 두 책을 비교해보면 「송강별집」의 총 26수 중 『유고산편』에 수록된 시는 단 4수에 불과하다. 이를 단순히 『유고산편』에서 일부만 선별한 결과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만약 『유고산편』이 「송강별집」의 저본이었다면, 162수에 달하는 유문 중 극히 일부만을 수록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강집』 범례에서는 「송강별집」이 친필 유묵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수습된 시들로 구성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유고산편』은 선별 대상에서 배제되었거나 이미 유실된 상태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두 문집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4수의 시는 동일 시의 중복 수습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전승 경로를 통해 우연히 겹쳐진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를 대조해보면, 시제가 상이하여 동일 시로 파악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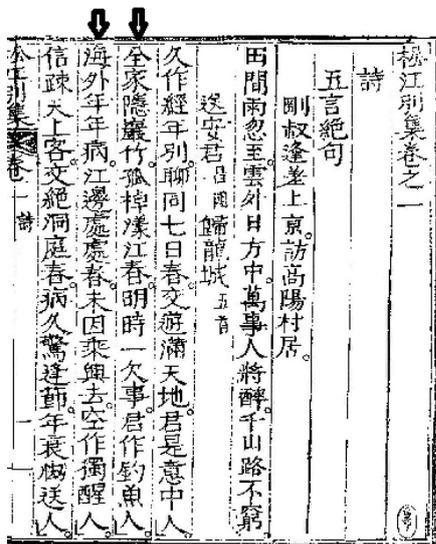
〈그림 28〉은 『유고산편』에 「贈思齊堂主人」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시로, 제목 하단에는 '姓名安昌國'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이 시는 1제 2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간본 「송강집」의 「송강별집」에서는 「送安君昌國歸龍城」이라는 전혀 다른 제목 하에서 제2수와 제3수로 편입

24 『송강속고』에는 「老病有孤舟」 옆에 '嘉靖辛酉八月十九日進士覆試詩題登第五'로 되어있지만, 간본은 '辛酉榜第五名'으로 소략하다. 추후 교감을 통해 보완하면 정철의 행적이 보다 자세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되어 있다. 양본 모두 동일 인물인 안창국(安昌國)에게 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내용상 차이는 없으나, 전승 과정과 저본의 차이에 따라 시제와 편차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철 시가 편집,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변형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8) 『유고산편』 마지막면



(그림 29) 『송강별집』 권수제면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1894년 간행된 삼간본 『송강집』의 편찬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정철 시를 정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1677년 성책된 이선의 『송강속고』를 기반으로 후손가에서 이루어진 증보 및 재편 작업의 결과물이 존재하였고, 이는 삼간본 간행 당시 수정 없이 그대로 간행되어 현재의 「송강속집」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둘째, 삼간본 간행 시점 즈음에 추가로 확보된 유문 자료들은 「송강속집」의 체계에 편입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송강별집」을 마련하여 그 유문들을 수습하고자 했던 상황이 확인된다. 특히 「송강별집」의 편찬 때에는 『유고산편』에 남아있던 162수의 시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그 결과 『송강집』 간행으로도 정철의 시문 자료들이 모두 외부에 공개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3. 『송강전집』의 편찬과 필사본 『송강집』 「습유」의 등장: 『유고산편』 시의 최종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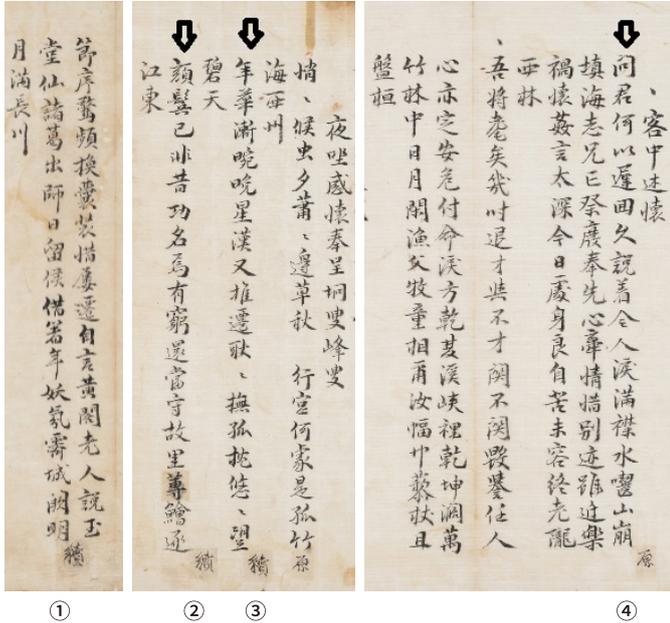
정철 시문 자료의 수습과 편찬은 1894년 삼간본 『송강집』 간행을 통해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64년 『송강전집』 간행 당시, 그간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던 시들이 필사본 형태의 「습유」에 수록되어 새롭게 등장하였다. 『송강전집』 해제에 따르면, 「습유」는 “至今까지 出刊하지 못하고 그 後孫이나 그 側近들이 秘藏하였던 松江의 親筆로된 文獻”²⁵에서 수집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수량도 적지 않다.

「습유」에는 정철의 시가 총 184수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오언절구 58수, 칠언절구 72수, 오언율시 14수, 칠언율시 36수, 오언고시 2수, 칠언고시 3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잘못 편입된 타인의 시 3수와 원운시를 제외한 정철의 작품 수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이처럼 다수의 시가 뒤늦게 수습된 것은 『유고산편』에서 선별되지 못했던 시들이 「습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습유」에 수록된 184수 가운데 173수는 『유고산편』에서 이미 확인되는 시며, 나머지 11수는 『유고산편』 외의 친필 유묵 등에서 새롭게 수습된 시로 파악된다.

앞서 『유고산편』의 표식을 살피는 과정에서, 시의 하단에 보이는 ‘原’, ‘續’, ‘別’의 표식이 「습유」의 편찬 과정과

25 鄭澈, 『松江全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4, 9쪽.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힌 바가 있다. 실제로 표식의 부정확한 위치는 「습유」 편찬 과정에서 수록 시의 중복과 누락으로 이어졌다.



〈그림 30〉 「습유」 편찬 때 누락된 『유고산편』의 시

〈그림 30〉에 제시된 시는 표식의 오류로 인해 「습유」에도 수습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못한 정철의 시 네 편이다. 먼저, ①의 시는 제목이 없는 오언율시로, 시 하단에 ‘續’ 표식이 부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송강속집」을 비롯한 어느 간본에도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다. 또한 ②, ③번의 시인 「夜坐感懷奉呈桐叟峰叟」 제2·3수 역시 ‘續’ 표식이 붙어 있지만, 이들 또한 「송강속집」에 없는 시다. ④의 「客中述懷」 칠언율시의 경우는 〈그림 30〉에 보이듯 제1수에 ‘原’ 표식이 붙어있지만, 실제로 초간본에 수록된 시는 제2수였다. 「습유」 편찬 과정에서는 표식이 없는 제2수를 수습하였고, 이로 인해 수록되어야 할 제1수는 누락되고 초간본에 이미 실린 제2수가 중복 수록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표식의 위치 오류, 혹은 편집상의 착오로 인해 「습유」에는 본래 수록 대상이었던 시가 누락되거나, 기존 수록 시가 중복 수록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습유」에는 이와 같은 중복 수록 시가 모두 14수나 된다.²⁶

26 일례로 「습유」 오언절구에 수록된 「宿靈隱寺」는 속집에 「山寺夜吟」으로

한편, 「습유」에는 타인의 시가 잘못 수록된 경우도 확인된다. 총 3수의 시가 이에 해당하며, 그중 2수는 『유고산편』에 이미 잘못 첨입된 작품이 그대로 인용된 사례다. 『유고산편』에는 타인의 시가 총 8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6수에는 타인의 작품임을 명기하고 있으나 2수는 아무런 표기도 없이 수록되어 있다. 「습유」는 이 표기가 누락된 2수를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수록하였고, 그 결과 윤두수(尹斗壽)의 칠언율시 「順天喚仙亭次宋圭庵金河西韻」과 정유길(鄭惟吉)의 오언율시 「寄題延安平遠堂」(『유고산편』 및 「습유」에는 「題官家壁」으로 수록됨)이 모두 정철의 시로 잘못 편입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유고산편』 외의 자료에서 김류(金瑬)의 칠언율시 「松京奉諸從事詞契求和」 중 제1수(「습유」에는 「失題」로 표기)도 「습유」에 잘못 수록된 상황이다.

1964년 『송강전집』 간행 때에 편찬된 필사본 『송강집』 「습유」는 ‘후손이나 측근들이 비장해 온 정철의 친필 문헌’에서 가져온 시들로 구성되었다고만 알려졌을 뿐, 그 출전과 수록시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고전종합DB에는 삼간본 『송강집』만이 선본 자료로 등재되어 있어, 「습유」에 수록된 시들은 『송강전집』 영인본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존 정철 한시 연구나 번역 작업에서는 「습유」의 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배제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유고산편』의 존재를 통해, 이 「습유」의 시가 『유고산편』의 미수습시를 근간으로 구축된 자료임을 입증하였다. 『유고산편』에 소재한 시들이 초간본 간행 이전에 정리된 선행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습유」의 시 역시 앞으로의 정철 시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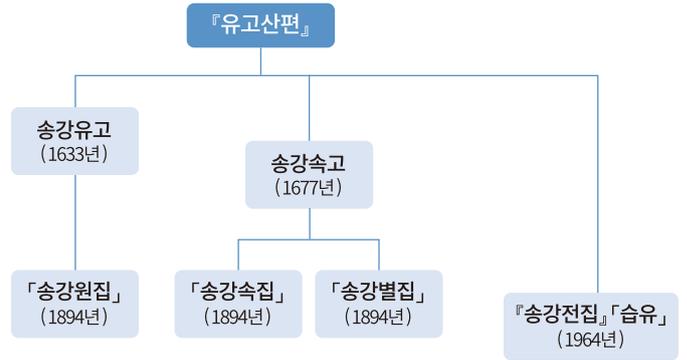
되어있고, 『유고산편』에는 「宿靈隱寺」로 되어 있어서 두 시가 같은 시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실수로 보인다. 『유고산편』의 시제는 나중에 재편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제 만으로는 중복 여부를 살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추후 정철의 시를 수합하고 각 문헌별 시 수를 정리할 때에는 반드시 중복된 시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만 「습유」는 편집 과정에서 타인의 시 3수를 포함하고, 기존 간본에 이미 수록된 시 14수를 중복 수록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고산편』 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언율시 「失題」, 오언절구 「夜坐感懷奉呈峒叟峰叟」 2수, 칠언율시 「客中述懷」 등 총 4수의 시를 누락시켰다. 결국 이 4수의 시는 <그림 30>을 통해 본고에서 처음 공개하는 정철의 시가 되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정철의 시가 수록된 『유고산편』의 발굴을 계기로, 이 책을 현존 문집들과 함께 살피면서 시기별로 시가 수습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추적해보았다. 그리고 각 문집에 소재한 시들의 출처와 수록 시들을 검토하면서 문집의 편찬 과정과 방향까지도 파악하고자 했다.

정철의 시는 『유고산편』에서 최초로 정리되었고, 『유고산편』을 선별했던 『송강유고』의 간행, 『유고산편』의 유문을 재선별했던 이선의 『송강속고』 편찬, 『송강속고』를 흡수하되 증보와 재편을 거쳤던 현존 삼간본 『송강집』 「송강속집」과 같은 모습의 필사본 편찬, 기존 필사본을 수정 없이 간행했던 『송강속집』, 삼간본 간행 때 수습한 시들을 모은 『송강별집』, 『유고산편』의 미수습 시들을 주축으로 한 「습유」 편찬까지 오랜 기간 시가 수습되고 재정리되는 과정을 거쳐왔다(<그림 31> 참조). 이러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유고산편』은 비록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철 문집의 편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써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 정철 시문집 간의 영향 관계

본고의 연구를 통해 향후 시도해볼 수 있는 작업은 정철 시의 제대로 된 수합과 재정리를 통한 정본(定本) 제작이 될 것이다. 『유고산편』과 『송강속고』의 발굴은 정철의 시문 자료가 추가 확보된 상황으로, 이로 인해 기존에는 시도할 수 없었던 본격적인 교감 작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본고에서 처음으로 밝힌 4수의 유문 역시도 『유고산편』을 중심으로 현존 문집들과의 교감을 통해 얻어낸 성과였다. 이제는 기존 간본들의 오탈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유고산편』과 『송강속고』에만 전하는 주석의 복원, 그리고 여러 문집에 흩어져 있던 연작시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 또한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본고에서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현존 자료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와 재정리를 통해 정철 시의 정확한 현존 수량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본을 제작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鄭澈, 『遺稿散編』, 국립한국문학관.
 —, 『松江遺稿』,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 『松江續稿』,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松江集』, 『한국문집총간』 46.
 —, 『松江全集』,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1964.
 —, 『(國譯) 松江集』 上·下, 三安出版社, 1974.
 —, 『國譯 松江集』, 松江遺蹟保存會, 1988.
 韓章錫, 『眉山集』, 『한국문집총간』 322.

2. 단행본 및 논문

- 유창·허경진·조계, 『한국시화인물비평집』 2, 보고사, 2012.

3. 기타 자료

- 『松江遺稿』 해제 (<https://east.skku.edu/#/search/detail/7012561?offset=1>)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ditorial Process in Jeong Cheol's Poetry Collections

With a Focus on the Recently Unearthed *Yugosanpyeon* (遺稿散編)

Lim, Mi-Jung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collecting, reorganizing, and compiling Jeong Cheol's (Songgang, 1536~1593) Sino-Korean poetry,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recently discovered manuscript, *Yugosanpyeon*. Hous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Literature, this manuscript bears the seal of Jeong Cheol's son, Jeong Hong-myeong, and is presumed to be a family-owned collection compiled prior to the first printed edition of *Songgangyugo* (1633). Consequently, it is significant as one of the earliest collections of his posthumous works. This research traces how *Yugosanpyeon* served as a foundational source for subsequent compilations, including the manuscript *Songgangsokgo*, the "Sokjip" and "Byeoljip" sections of the third edition of *Songgangjip*, and the "Seopyu" section of the later *Songgangjeonjip*.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Yugosanpyeon* and existing collections, this paper identifies four previously unknown poems, clarifies the structure of dispersed linked verses, and addresses issues regarding the restoration of annotations and correction of textual errors in printed edi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a systematic collation process to accurately determine the extant corpus of Jeong Cheol's poetry and establish a reliable critical edition.

Keywords Songgang, Jeong Cheol, Jeong Hongmyeong, *Songgangjip*, *Songgangyugo*, *Yugosanpyeon*, *Songgangsokgo*